

같은 유치인 ‘다른 점심’ 檢·警 공조로 개선됐다

그동안 같은 유치인 신분이면 서도 검찰에 구속됐느냐, 경찰에 구속됐느냐에 따라 다른 점심 메뉴를 제공받았던 피의자들이 앞으로는 검찰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보다 나은 점심을 똑같이 먹을 수 있게 됐다.

17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유치인도 검찰청 구내식

당에서 송치된 유치인은 찬 밥과 2~3가지 반찬으로 된 1천500원 짜리 도시락을 한 자리에서 먹게 돼 같은 유치인이지만 검·경 차별 논란은 물론 유치인 간 위화감이 일 정도였다.

현재 광주지검 호송출장소를 비롯한 전국 19곳의 출장소 가운데, 인천·울산·창원지검에서는 검찰청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고, 안산지청과 안양지청은 경찰서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 오후에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경찰서에서 송치된 유치인들에게 중식으로

빵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13곳의 호송출장소에서는 경찰서에서 유치인들이 도시락을 가져와 검찰 호송출장소에서 중식을 해결하는 등 같은 유치인이지만 천차만별의 대우를 받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동부경찰서 한급습 수사지원팀장은 “갑진회 동부경찰서장과 갈매기 광주지검장이 이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 지난 1일부터 따뜻한 중식이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지검은 전국검사장 회의 때 이 문제를 공식화해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검찰 - 따뜻한 밥·5가지 반찬

경찰 - 찬 밥에 2~3가지 반찬

“위화감 조성” 이달부터 똑같이

당에서 제공하는 메뉴로 점심을 해결하게 됐다. 그동안 광주지검 관내 14개 경찰서에 구속된 유치인은 검찰로 송치될 경우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여름철에는 일정한 온도관리 시설을 갖춘 도시락 보관함이 없어 식중독 위험이 있었으며, 겨울철에는 찬밥으로 중식을 해결해야 했다. 유치인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것은 물론 호송하는 경찰도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품어왔던 게 사실이었다.

특히, 검찰에 구속된 피의자는 따뜻한 밥과 5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3천원짜리 도시락으로, 경

2009 광주 아시아인권학교 수료자 14개국 20명의 각오

“광주정신 고국에서 실천하겠다”

“더 많은 것 배우고 싶은데 기간 짧아 아쉬워”

“작은 것부터 실천, 우리나라 민주화의 초석을 다지는 인권운동가가 되겠습니다.”

2009 광주 아시아인권학교 수료식을 하루 앞둔 18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에서 만난 참가자 20명은 낭랑하지만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소회를 풀었다. 참가자들은 인도네시아·인도·네팔·스리랑카·필리핀·캄보디아 등 14개국 인권활동가들이다.

이들은 지난달 31일부터 20일간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과정과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 아시아 인권실태, 아시아의 식민지 지배와 서구의 지배전략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들이 수료식을 마치고 돌아 가면 인권운동가로서 자국의 민주화를 위해 애쓰게 된다.

이번 참가자 중 최우수 참가자로 선정된 동티모르 진상규명프로그램 준비위원회원 질(Gil·32)씨는 “광주에 오기 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 의미를 더 고보니 한국이 어떤 과정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게 됐는지 알게 됐다”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가고 싶은데, 교육기간이 정해져 서운하다”고 아쉬워했다.

방글라데시 인권감사·권익옹호시민단체 회원 라만(Rahman, M. Mujibur·46)씨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아시아 인권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광주 아시아인권학교가 아시아 인권운동가들의 교육을 위한 메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네팔 진보청년회원 바산타(Basan-



아시아 인권운동가 14개국 20명의 참가자들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민주·인권운동에 대한 강의를 들던 중 박수를 치고 있다. 이들은 19일 수료식을 갖는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ta·32)씨는 “아시아 인권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다.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과 인권실태 등 각자의 경험을 들을 수 있

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5·18 기념재단에서 이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2·28 기념재단 소속 유젠(Yu-Jen·27)씨는 “인권운동가로 첫 발을 내디딘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강의를 받으면서 자아를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민주·인권 등에 대한 내 생각이 많이 변한 것 같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인권운동가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9 광주 아시아인권학교 수료식은 19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주택 임대업체 대표 잠적

서구 190, 전국 800여가구 피해

세입자 전세금 못받아

대규모 주택 임대업체 대표가 잠적해 전국적으로 800여가구에 달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광주 서구 송촌동 모 임대사업체 대표 A씨가 최근 잠적했다. 이 업체가 보유한 주택은 광주 서구에만 190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787가구에 이르는데 A씨가 잠적하면서 세입자 대다수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은행 대출과 전세금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주택을 담보로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이 경매절차를 밟게 되면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한 톨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서구청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법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18일 광주시 동구 광주천변에서 열리고 있는 ‘광주천 환경미술제’에 참가한 작가들이 작품을 설치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주관한 환경미술제는 28일까지 이어지며, 20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천 주민문화제’

18~28일 푸른길공원, 환경미술제·공연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푸른길공원에서 ‘광주천 주민문화제’를 개최한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주민문화제는 광주천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천 남광교~하림교 구간과 옛 남광주역인 푸른길 기차(실내전시)

에서 이뤄지는 ‘광주천 환경미술제’에는 참여작가 22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환경운동연합 측에 미리 연락을 하면, 작가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작품을 관람할 수도 있다.

오는 22일 오후 6시30분 광주시 동구 학동 광주천변에서는 다양한 볼거리가 포함된 ‘광주천문화제 공연’이 열린다. 광주천의 모습을 소개하는

광주시 기능직 공무원 ‘바늘구멍’

6명 채용 232명 물려

광주시가 최근 6명의 기능직 공무원을 뽑기 위해 실시한 채용 시험에 무려 232명이 몰렸다. 공공기관이나 법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워드프로세서 등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했는데도 40대 1에 가까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기능 10급 운전직 1명을 뽑는데 무려 108명이, 기능 10급 일반직 3명을 선발하는데 117명이, 기능 8급 선박직 1명을 뽑는데 7명이 각각 지원하는 등 운전직과 일반직의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

지원자 상당수는 광주시청에서 무기계약자(일용직)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기능직 공무원에 이처럼 지원

이 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무기계약자는 일당제로 1년에 300일을 초과해 임금을 받을 수 없는데다, 승급 또는 승진을 할 수 없어 특별한 임금인상 요인이 없으면 근무연수가 늘어나도 연봉이 같다.

반면 기능직은 정년(60세)이 보장되고 승급과 승진(5급까지 가능)도 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일반공무원으로 대우해준다.

이렇다 보니 시청에서 10년 이상 무기계약자로 근무하는 ‘예비 공무원’들은 기능직이 되는 게 ‘꿈’이어서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기능직 공모에 관심을 두고 있다.

기능직 공무원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윤영기기자 penfoot@

교과부, 휴교 자체령

초·중·고교에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은 등교 중지시키고 휴교(휴업)는 가급적 하지 말라는 ‘자체령’이 내려졌다. 해외여행 학생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입국 후 7일간 등교를 금지하던 지침도 폐지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 지침’을 개정 또는 전면 보완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새 지침에서 신종플루 확진 또는 의심 학생만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등교중지’ 조치하고 휴교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휴업을 실시해왔지만 지역 사회 감염이 확산한 상황에서 휴업 조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휴업을 하면 학생들이 집에만 있는

니원침 (7907) 김장두



수산물 보조금 사기 8명 입건

완도해양경찰은 18일 국가지원 사업 선정에 필요한 자부담금을 투입한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을 받은 장흥모 영어법인 이사 이모(40)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말 총공사비 15억원의 수산물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6억원은 법인이 부담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국비 9억원만으로 수산물 가공공장을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원도=정은기자 ejchung@

신종플루 환자만 ‘등교 중지’

것이 아니라 외부활동을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학교에 있을 때보다 감염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해외여행 학생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시해온 ‘입국 후 7일간 격리’ 지침도 없애 입국 시 신종플루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다면 곧바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전 학생을 상대로 한 체온 측정은 당분간 계속 시행된다.

대신 체온 측정 결과 발열 학생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의사소견에 따라 최대 7일까지 자택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종플루로 정기고사 등에 결시한 학생에 대해 학교가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 점수를 부여하고, 수업결손이 생기지 않게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정학습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구두담이 든친 못된 조폭들 ‘덜미’

상다발

○한 명은 구두를 맡기고 다른 한 명은 말린 구두를 숨긴 뒤 잃어버린 구두값을 변상하라며 협박과 감찰을 일삼아온 조폭 일당 2명이 경찰에 잡혀.

○광주 서부경찰은 18일 구두담이를 협박해 수차례 돈을 빼앗은 조폭력배 박모(23)씨 등 2명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6일 오후 광주 서구 모 사우나에서 “구두를 찾아내라”며 구두담이 A(37)씨를 협박해 30만원을 빼앗은 등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갈취한 혐의.

○조사 결과 이들은 한 명이 자신의 구두를 맡기고 나서 다른 한 명이 구두담이를 밖으로 잠시 불러낸 뒤 이 사이 말린 구두를 숨겨놓고 “구두를 잃어버렸으니 변상하라”고 협박했다는 것.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추석 코 앞인데 ... 담양 한과 공장 불

추석 대목을 앞두고 담양의 한과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건물이 전소됐으나 출하될 한과는 대부분 별도의 창고에 보관중이어서 화마를 피했다.

18일 새벽 4시경 담양군 창평면 박모(여·54)씨가 운영하는 M한과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50여분만에 진화됐다. 당시 공장에는 직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화재로 공장동(1천497㎡)이 모두 타고 공장동과 연결된 포장동(996㎡)이 부분적으로 소실, 소방서 추산

1억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샌드위치 패넌로 만들어진 공장동과 포장동은 각각 3층과 2층짜리 건물이 다. 이 공장은 7억5천만원 상당의 화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석에 맞춰 출하될 한과는 대부분 또 다른 창고에 보관중이어서 화마를 비켜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시작된 공장동이 전소돼 화재 원인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진=담양소방서 제공)